길을 잃은 것이 미혹이다

〈迷惑〉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⑲ 착각

〈원문〉 부루나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만약에 이 미묘한 깨달음의 본래 묘하고 밝음이 여래의 마음과 똑같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데 까닭 없이, 홀연히 산하대지의 모든 유위(有爲)의 모습이 생겼다면 여래는 지금 미묘하고 공한 밝은 깨달음(妙空明覺)을 얻었사오니 산하대지 유위의 습루(習漏)가 언제 다시 생기게 됩니까?"

부처님이 부루나에게 말했다.

"어떤 마을에 사는 사람이 방향을 착각하여 남쪽을 북쪽이라 한다면 이 착각이 착각을 인하여 있는 것인가. 착각하지 않음을 인하여 있는 것인가?"

부루나가 말했다.

"이 착각한 사람은 착각을 원인으로 한 것도 아니고 착각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착각은 근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착각을 원인으로 했다 하며, 착각하지 않으면 착각이 생기지 않거늘 어떻게 착각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했다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다시 부루나에게 착각은 근본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다.

〈강해〉 깨달음(悟)과 미혹(迷)의 관계를 두고 말할 때 중생이 본래 부처였다면 왜 중생으로 전락되었느냐는 문제와 부처도 그러면 중생이 될 때가 오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청정본연(淸淨本然)한 데서 산하대지 유위상(有爲相)이 생기게 되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부루나가 생각해 보니 깨달음의 세계가 미혹의 세계로 바뀌진 것이 산하대지 유위상이다. 그렇다면 부처님도 다시 유루습기(有漏習氣)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 물었다. 깨달은 부처님이 다시 미혹한 중생이 되는 수가 있느냐는 말이다. 〈원각경〉 '금강장보살장'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온다. 여기에 대한 답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다. 어떤 마을에 사는 사람이 동서남북의 방향을 착각하여 남쪽을 북쪽인 줄 알았다. 이것이 미혹(迷惑)이다. 길 잃은 아이를 미아(迷兒)라고 하듯이 원래 미(迷)란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중생이 생사의 윤회를 거듭하는 것도 고향을 잃고 헤매는 미아의 신세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동네에 살던 사람이 어째서 남쪽을 북쪽이라 여겼는가? 이것은 그야말로 느닷없는 착각일 뿐이다. 미(迷)의 원인이 없다는 것을 말해 놓고 있다. 물론 정방(正方)이 있기 때문에 착각한 것이지만 착각 그 자체는 홀연히 잘못 생각한 착각일 뿐 착각할 원인이 본래 있어 이것을 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고, 착각하지 않은 상태가 착각의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착각의 근본이 없다는 것이다. 본래 미(迷)한 것은 없는 것인데 미혹하지 않았던 사람이 홀연히 미혹해졌을 뿐이다. 여기서 방향을 바로 아는 것은 오(悟)고 방향을 착각한 것은 미(迷)인데 미(迷)가 미(迷)에서 생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오(悟)에서 생긴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 대목의 결론이다. 또 착각하여 남쪽을 북쪽이라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남쪽이 북쪽이 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비록 착각했지만 착각(迷) 자체가 공(空)한 것이다. 착각(迷)하고 있다가 누군가 정방(正方)을 바로 일러주어 착각을 벗어나면 이미 미(迷)가 아닌 오(悟)인 것이다.

정각을 이룬 부처님이 더 이상 미혹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몇 가지 비유를 들어 설한 대목이 있다. 그 하나는 나무가 타서 숯이나 재가 되면 그 숯이나 재가 다시 타지 않은 나무로 돌아갈 수가 없고 또 광석에서 추출된 순금이 순금이 된 후에는 광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였다. 경문에서는 또 "미(迷)을 깨달아 미(迷) 없어지면 각(覺)에서는 미(迷)가 생기지 않는다(覺迷迷滅 覺不生迷)"고 하였다. 비록 중생의 번뇌가 미혹이기는 하지만 중생 자체는 번뇌가 있건 없건 각(覺)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다만 수행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수행의 지위가 구분되어 지위점차(地位漸次)가 있는 것이지만 보리 그 자체에서는 지위점차도 없는 것이다. 본래의 깨달음은 본각(本覺)이고 수행을 통해 얻는 깨달음의 접근성을 구분하여 시각(始覺)이라 하며 이 시각에 범부각(凡夫覺)이 있고 상사각(相似覺), 수분각(隨分覺),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을 구경각(究竟覺)이 있다고 구분해 말하기도 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본성으로 황정 비춰 모든 경계 수용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⑲ 황정의 형성

기운이 미세하고 부드럽게 순화되어야 내단전이 감지된다. 내단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호흡도 미세해져야 한다. 숨을 멈춘 것처럼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호흡이 미세해져야 한다. 툭! 하고 걸리는 느낌이 없으면 기운의 순화가 덜 된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주천(周天)을 반복해주어야 한다. 감지될 때까지 반복한다. 이때 툭! 하고 걸리는 느낌은 신장의 선천기와 한 물건이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신장의 선천기를 신화(腎火)라 한다. 한 물건이 하단전과 명문 사이를 오고 가다 보면 신장이 자극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신장에 내장되어 있던 선천혼이 깨어난다. 신화는 신장의 선천혼이 생성해 내는 선천기이다.

하단전에서 배양된 한 물건은 명문의 선천원기와 후천기, 밝은 성품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그 한 물건이 진화해서 나중에 양신(陽身)으로 변화된다. 비상비비상처정을 이루는 목적 중의 한 가지가 양신배양이다. 한 물건이 양신으로 진화되려면 육장의 선천기를 얻어야 한다. 그 시작이 신화를 얻는 것이다. 내단전은 신화와 한 물건이 합쳐지는 자리이다. 신화와 한 물건이 합쳐지면 네 종류 에너지가 합쳐진 것이다. 채약을 이루게 되면 다섯 가지 에너지가 합쳐지게 된다. 순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한 물건이 내단전에 안착되면 속이 메슥거린다. 그런 경우에도 반신 소주천을 반복해 주어야 한다. 계속되는 주천은 다음의 과정을 따른다.

이 과정에서는 '옴' 자 발성을 하지 않는다. 호흡의 감각만으로 반신 소주천을 행한다. 숨을 들이쉬면서 내단전에 깃든 한 물건을 주시한다. 숨을 내쉬면서 한 물건을 명문으로 밀어낸다. 명문에 한 물건이 맺히면 다시 중심으로 이동시킨다. 숨을 들이쉴 때, 명문을 주시한다. 이때 후천기는 섭취하지 않는다. 숨을 내쉬면서, 중심과 명문을 함께 주시한다. 명문의 한 물건이 영대를 통해 중심으로 끌려온다. 영대를 주시하며 숨을 들이쉰다. 중심의 한 물건을 갈비뼈를 타고 영대로 이동시킨다. 숨을 내쉬면서 중심과 영대를 함께 주시한다. 영대의 한 물건이 중심으로 이동해 온다. 가슴바탕이 텅 비워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들숨에 영대를 인식하고 날숨에 중심, 하단전, 내단전 경로를 인식한다. 툭! 하고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 그대로 내단전에 안착시킨다. 순화되지 않은 한 물건이 내단전에 내장되면 주변 장부의 고유성이 훼손된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업식들이 깨어난다. 내단전에 한 물건을 내장시키면, 공부의 성취가 비약적으로 빨라진다. 이때를 일러서 황정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황정이 형성되면 저절로 살갗 호흡이 일어나고 몸 전체로 후천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훈훈한 열기와 함께 백회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를 감싸는 기운의 막이 형성된다. 몸의 다른 부위들은 텅 비워진다. 무념 · 무심은 투철해져서 바늘 끝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큼 튼튼해진다. 감정이나 분별이 일어나도 그대로 내단전에 흡수되어 버린다. 번뇌 망상이 일어나면 즉시에 제도된다. 비로소 흐트러짐이 없는 안정을 얻게 된다. 여기까지가 반신 소주천의 완성이다.

이 상태에서 꼬리뼈 순화를 행한다. 황정이 형성되면 '마음 달이 떠올랐다'라고 말한다. 이때는 황정을 정(定)의 주체로 삼는다. 지극하게 본성으로 황정을 비춰보면서 모든 경계를 그 자리에 집어넣는다. 아기를 밴 듯, 알을 품은 듯, 황정의 기운을 본성으로 비춰준다.

이때가 되면 꼬리뼈에서 진동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엄청난 냉기가 뿜어져 나온다. 고관절이 벌어지면서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 얼음 같은 냉기가 발바닥으로 빠져나가면서 용천혈 부위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 그러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 스님의 〈능가경〉 강설

⑲ 일체가 무생(無生)

본래 제도할 중생은 없다

부처님의 말씀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적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는데,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유추하여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진리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진리는 물질의 현상계에서 나타난 적이 없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만약 이 부분을 뒤집어볼 수 있다면 모든 경계가 확연하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막히게 되면 미진함에 계속 갇히게 된다. 이 부분을 듣고 오온에 대한 잔여물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진리를 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 라고 알고 있는 자의 혀가 끊어지는 자리일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듣고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는 것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한 일이다.

왜냐하면 참으로 모르면 그것에 의문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렴풋하게 알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에 의문을 던져보는 것인 줄 모른다. 이때 어렴풋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할까? 아마도 그는 살아온 세월 동안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듣기만 하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진리를 바로 듣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물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만, 교만, 자만심의 작용으로 오온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오온에 대한 어리석음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게 된다면 진리를 의심하는 자에 대한 의심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는 안다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에 '왜?'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없다. 오온이 의문을 가지더라도 스스로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다. 그렇다고 오온을 설득하지도 않는다. 이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본래의 자리에서 오온이 그것에 대해 조용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일밖에 없다. 여기에서 사용한 '본래의 자리' 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추가하면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을 제외한 자리로 알아야 한다. 이러한 단순함을 오온이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는 이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항상 모양에 따라 그 대상에 맞는 이름을 찾아 사용하면서 생활한다. 여기에서 대혜대사가 중생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대혜대사가 사용한 중생이 어떤 중생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 그저 대혜대사 자신이 평상시에 마음에 품고 있는 중생일 것이다. 그러니 대혜대사 입장에서는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 중생은 제도를 해야 하는 중생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혜대사 마음에 있는 중생이지, 밖으로 드러난 중생은 아니다. 그러니 대혜대사가 말한 중생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은 완전 다른 것이다.

"일체가 모두 무생이요 또 인연으로써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 이 생멸 속에서 인연의 상이 일어나도다."

부처님께서 지칭한 중생은 모양은 있지만 제도해야 하는 주체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양이 있으면 주체가 있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모양과 주체를 동일한 대상으로 인지하므로 제도해야 하는 대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차는 언어로는 같은 중생을 말하면서 보는 곳은 다른 것이 되고 만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양이 변한다는 것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정작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양을 바르게 안다는 것을 착각하여 세밀하게 보려고 관찰하는 것에 몰두한다. 사실 바르게 안다는 것은 단순하다. 모양은 항상 변하고 있다. 이것이 모양에 대해 관찰이 끝난 상태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있게 새기는 것이다.

모양이 변한다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나면 변하는 것은 고정된 상이 없음을 알게 된다. 고정된 상이 없다는 것은 그 모양에 주체가 존재할 수 없음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확! 변해버린 스님의

염불소리에 스님 염불이다! 아니다! 테프 소리다! 공양간의 보살들이 법당으로 확인 차 몰려오는 소동을 20년 2천여 사찰의법당 시설중 수 도 없이 겪었던 경험!

오직!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전화하시면 반드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에 소리비교만 해 드린 후 신속히 사라지는 이유..... 내 귀에 수 천번 반복되는 내 염불소리가 장엄 신명 힐링으로 보물이 따로 없지만 계산법이 몹시도 어둡고 수준급 보살들의 소리수준을 전혀 모르는스님들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신속하게 사라질수 밖에 없음!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본 품은 TV 및 세미나에 다수 출연한 명품소리 훈련 베테랑 강사가 오랜 경험 끝에 염불, 법문전문용으로 특수제작한 시스템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및 핀 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증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충전식 각종 방생용 전문판매, 시설가격 190~사찰 규모따라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23-0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